

강진군 “주민 직접 제안사업 예산에 적극 반영”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열어 지방 재정 운영 공정성 실현 파산천 풀베기 등 10건 선정 가용범위 내 본예산 반영 노력

강진군이 2025년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10건을 선정했다. 군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로 강진군은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위원장 최종남) 12명이 참석해 내년 강진군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사업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제안 사업들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보건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올해 주민 참여예산을 통해 건의된 총 36건 가운데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영포←갈전 아스콘 포장, 파산천 제방 풀베기 사업 등 10건을 선정했고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민주주의의 또다른 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행을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23일까지 강진군청 홈페이지 우편, 읍면동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한 바 있다.



강진군이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 강진군 제공

영암군, 농기계 무상임대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대상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제14호 태풍 플라산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12월까지 농기계 무상임대에 나선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무상임대는 농업인이 농기계 등을 이용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마련됐다.

영암군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관리시스템에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신고·접수해 등록 확정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무료로 빌려준다.

농기계 임대 희망 농업인은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40종 747대를 최장 3일간 빌릴 수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집중호우 피해 뿐만 아니라 올 여름 폭염에 따른 햇볕 데임, 벼멸구 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 농기계 무상임대 범위를 넓혀갈 전망이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집중호우 피해를 포함해 노동력 부족,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무상임대로 농업인이 부담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군민 고충 청취·해결 방안 모색

진도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진도군청 종합상황실에서 군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주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제도이다.

이날 상담장에는 진도군민을 비롯해 인접한 목포, 해남의 주민들도 고충 겪고 있는 불만, 고충들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 방문했으며 행정, 문화, 복지, 노동, 농업, 환경, 교통, 도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조사관들이 사전에 상담예약된 민원과 현장접수된 민원, 총 55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3년 최우수(가 등급) 기관 선정’에 이어 군민의 고충 해결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고충, 불만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맛플무안몰, 특별 할인 행사 쌀 소비 촉진 나서

무안군은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8일까지 1인당 5매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 맛플무안몰에 입점한 모든 쌀과 잡곡을 2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미술랭 기획전’을 진행한다.

맛플무안몰은 지난 5월과 7월 추진한 쌀 할인 기획전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쌀·잡곡 할인 행사도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쌀 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로 벼 재배 농가의 상심이 큰 요즘 무안 쌀 소비 촉진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역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획전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스마트관망관리 구축 등 논의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지사는 지난달 24일 진도군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하는 고객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당일 위원회에서는 진도군 지방상수도 12년간의 운영 성과와 올해 4월 준공된 스마트관망관리(SWM) 구축사업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지역 상생협력 활동인 IOT 기반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물 환경개선 행복가득수 프로젝트, 진도군 미래세대 인재 육성, 찾아가는 고객간담회 등 성과를 점검했고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위원들은 진도군의 상수도 우수율이 7년 연속 80%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상수도 고객만족도가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성과 등을 호평했다.

강보승진도수도지사장은 “지역소멸에 따른 문제를 공유하고 진도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과의 소통 활동을 강화해 수도물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지난달 30일 완도군에서 열린 전남 민속예술 축제에 도내 17개 시군의 일반, 청소년부 등 2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제47회 전남 민속예술 축제 성료

완도군에서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47회 전남 민속예술 축제’가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제47회 전남 민속예술 축제’는 전남도와 완도군이 주최하고 전남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했으며 도내 17개 시군의 일반, 청소년부 등 2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 결과 영예의 대상 일반부는 여수의 ‘여수 삼동매구 마당밧기’가 청소년부는 신안군 ‘비금뽕뽕기 강강술래’가 수상했다.

두 팀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각각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최우수상 일반부에는 완도군의 ‘생일도 발광대 놀이’, 청소년부는 진도군 ‘진

도소포걸군 농악’이 받았다.

우수상 일반부는 신안군 ‘비금도 뽕뽕기 강강술래’와 곡성군 ‘동산쟁이 당산굿과 밧고사’, 청소년부는 영광군 ‘우도농악 판굿’이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남도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지키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는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축제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도 민속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강진군,목포대·전남도립대·드론 기업체 업무협약

옛 성화대 드론 테스트장 구축

강진군은 성전면에 있는 옛 성화대학에 드론서비스 모델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목포대, 전남도립대와 연계한 드론 및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드론산업 혁신밸리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일, 목포대·전남도립대 산학협력단장과 전남도립대 항공드론융합대학사업단장, 드론업체 대표 8명과 함께 광주시에 위치한 ‘더 워크(공유 오피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목포대·전남도립대, 실증사업 참여기업 8개사 대표들은 강진군과 협업체 드론산업 발전을 이끌고 옛

성화대 캠퍼스를 드론산업혁신밸리로 굳건히 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강진군의 드론서비스 모델 실증을 위한 컨소시엄 사업에는 드론서비스 기업, 드론 핵심부품 및 솔루션 기업, 특수드론 제작 기업들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드론서비스 기업은 ㈜경기항공, ㈜지아이, 돛돛㈜, ㈜도경무인항공, 엘리티스㈜이며 드론 핵심부품·솔루션 업체는 대신정보통신(주), 볼트라인(주)이다. 드론 핵심부품·제작사는 호그리너어(주)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옛 성화대 캠퍼스에 드론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포대·전남도립대의 드론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드론 기업들과 산학 공동연구 과제

를 발굴하고 수행할 예정이다.

가칭 강진드론 신뢰성인증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드론 및 관련 부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신뢰성 시험평가 등을 통해 드론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강진군은 폐교된 성화대를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 거점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7월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30억원(도비 200억원·군비 130억원)을 확보했고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기획 단계를 마무리했다. 이후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inilbo (전일보). Includes Kakao Talk and Email addresses.